

제목: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1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에베소에 더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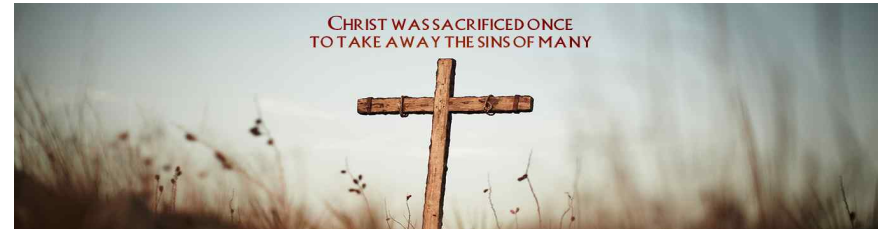
1. 그가 있음으로 다른 \_\_\_\_\_의 잘못 됴을 알게 하십니다.
2. 율법이 \_\_\_\_\_이 됴을 알게 하십니다.
3. \_\_\_\_\_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디모데전서 1장 1-11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1: 1-11 신약 337 페이지 Presider
- 말씀 .....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만족한 삶)

해가 길어졌다. 서북미의 여름은 그래서 멋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가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보니 저녁 시간이 되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물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서북미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수 십년을 돌아보면 미국에 이민 와서 도대체 얼마나 이사를 했는지 미국 동서남북 안 살아본 곳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서북미의 긴 그림자가 좋지만 필라델피아의 단풍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억이다. 또한 피부에 와 닿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은 그 어느 곳도 남가주를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뉴저지의 겨울눈은 늘 포근함을 주었고 시카고에 살며 느낀 미시건 호수의 연두색 깨끗한 물은 신비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살았지만 그 어느 곳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어느 곳도 내 마음을 완전히 정착하고 이곳이 나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까 생각 했는데 실은 아직도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의 광야 도망 길을 묵상해 본다. 그는 계획하지 않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그곳을 광야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을 성소라고 표현했다. 그 광야를 성소로 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인생은 이곳이 광야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자신이 정착할 곳이라는 고백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세상에 사는 그 지역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나의 집이요 세상에서의 나의 정착지라는 것이다. 아무리 계절이 좋고 공기가 맑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떠나야 할 곳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고 하여도 그곳은 성소이고 나의 집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참 좋은 곳이다. 일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갈망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4절)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려주신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곳에서 살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면 살겠는가? 인기 많은 지역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과연 인기 있는 곳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지역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 있는 곳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은 만족하게 된다. “주님! 두 손을 올려 드립니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목장 모임

6월 목장 모임은 쉽니다. 7월에 모이기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6. 7월 행사

목자 훈련	7월 16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7월 23일	주 중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